제 64호 큰 그림 2

지난 호에는 학생들을 위한 "큰 그림" 그리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교수님이 준비하시는 강의내용에 대한 큰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는 각자 강의노트를 특성 있게 준비하시겠지요. 큰 골격만 대충 준비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가 하면, 강의 내용을 마치 연설문을 준비하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 노트에 꼼꼼히 적으시는 교수님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강단에 선 첫 두 해 동안에는 모든 강의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말로 전달할 내용은 제 특유의 말투로 적고, 칠판에 쓸 내용은 따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던질 질문도 준비하고, 예상되는 응답에 대한 코멘트도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써먹을 유머나 농담마저 어느 시점에 할 지 강의록의 해당 부분에 적어 넣고, 유머의 타이밍까지 미리 연습했습니다. 학생들 눈에는 유머가 마치 즉흥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강의 노트가 하나의 드라마 각본이었습니다.

이토록 철저히 준비된 강의노트를 훗날 (같은 수업을 맡게 되었을 적에) 다시 보니 숨이 꽉 막히더군요. 물론 꼼꼼한 준비로 인해 수업이 아무 막힘 없이 술술 진행되었겠지요. 하지만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건네주는 정보 쪼가리를 날름 받아 삼키기야 했겠지만 의문스러운 점이라든지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빈틈없이 짜여진 수업, 즉흥적인 유머마저 각본대로 진행되는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그 수업은 일방적이었을 것이며, 강의실은 교수와 학생들의 "지적 어울림"의 장소라기보다는 "지식 도매상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지식중간도매상을 제거하자," 새시대 교수법 p.185)

그래서 같은 과목을 두 번째 강의할 적에는 예전 강의노트를 읽고 강의내용을 다시 한 페이지 정도로 축소하였습니다. 강의내용에 대한 큰 그림에는 다음 항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1. 전번 강의의 결론
2. 오늘 강의의 주요 목적
이슈 (오늘 이룰 강의 목적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전번 강의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소제목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음)
예
응용
3. 다음 강의의 주요 목적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와 응용문제를 여럿 준비하면 한 둘만 다루든지 서너 개까지 다룰 수 있는지 그 때 그 때 상황과 시간여유에 따라 정하실 수 있게됩니다. 한마디로 유연

한 강의로 수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내용 큰 그림"의 가장 큰 장점은 강의 흐름이 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내용이 전번 강의와 다음 강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등이 보입니다. 강의내용의 순서가 뚜렷해야 내용의 전후가 매끈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학생들이 강의내용이 토막 난, 서로 무관한 정보 쪼가리가 아니라 서로 다차원으로 연결된 지식임을 느끼게 됩니다. 공자께서 교육의 4대 조건 중에 하나가 순서(順序)라고 하셨습니다.

ⓒ **조벽**, 2000